

## New Leader of Clean Energy Market in Korea



발전소 주경

### 회사소개

한국종합에너지(KIECO, 대표이사 홍기준)는 'New Leader of Clean Energy Market in Korea'를 기업의 Vision으로,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에너지를 최적의 방법으로 제공함으로써 주주, 임직원 및 국가사회 공동의 행복을 추구하고 함을 회사의 Mission으로 정하고 '원칙준수, 상호존중 및 신뢰구축, 변화와 혁신추구, 고객만족 및 사회적 책임완수'를 전 임직원이 공유하는 4가지 핵심가치로 선정하여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2005년 2월 21일 KIECO는 상업발전 33주년을 맞이하였다. 지난 1969년 한국화약과 미국 Union Oil사의 합작투자계약에 의해 인천 울도에 한국 최초의 민간발전소를 건설하여, 1972년 2월 21일 첫 상업운전을 개시한 이래 발전신뢰도 99.9%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통하

여 수도권 지역의 산업화에 기여해 온 지도 어언 33년이라는 세월의 발자취를 기록하게 되었다.

32만kW의 설비를 발전을 시작한 KIECO는 1994년 국가 전력수급안정대책에 의한 정부 요청에 따라 단계적으로 설비를 증설하여 2002년 1월 1일자로 총180만kW의 LNG 복합화력 발전소로서 성장하여 국내 최대의 민간발전소로서의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하고 있다.

### 원칙준수

우리는 모든 업무를 수행할 때 윤리와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며 제반 원칙을 준수한다.

KIECO는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지켜 한국 에너지 산업의 리더로서 초일류기업을 지향한다. 국가사회의 발전은 나 스스로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원칙을 가꾸고 키워나가기 위해 KIECO는 윤리경영을 새로운 기업이념으로 채택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활동을 위해 전 임직원이 노력하고 있다.

2004년 9월 6일자로 윤리헌장을 제정, 선포하고 모든 임직원이 윤리실천 지침에 따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거래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거래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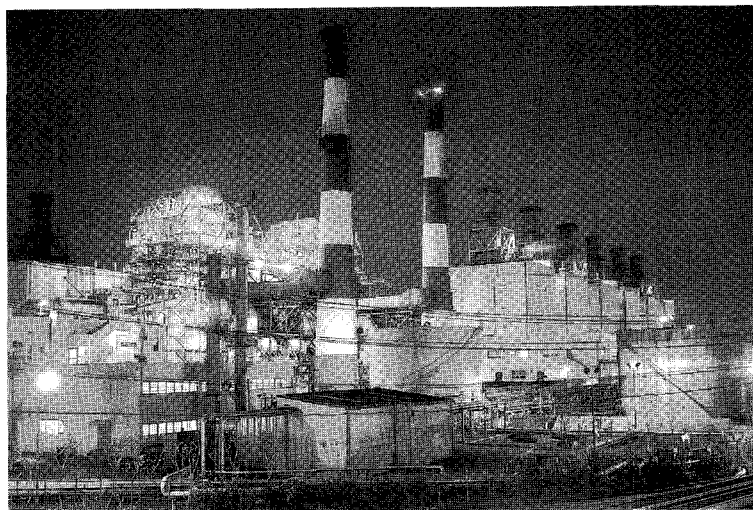
이러한 윤리경영의 정착을 위하여 모든 임직원은 협력회사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 편의 등 정직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고 있다.

상사로부터 법규와 회사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 지시를 받은 직원은 업무수행을 거부 할 수 있으며, 윤리헌장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활동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은 포상하고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임직원은 징계에 회부한다.

### 상호존중 및 신뢰구축

회사는 회사 구성원 개개인을 존중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회사 구성원간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며 개인의 성장, 발전을 추구하여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장이 되도록 노력한다.

기업의 역량은 조직원의 역량을 기초로 한다. 직원의 역량 강화는 3단계로 나누어 전 임직원이 가져야 할 가치, 문화 그리고 사업상의 책무를 반영하는 '기반역량', 조직내 역할/직무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역량', 마지막으로 개별 직무에서 요구되는 '고유역량'으로 나누어 육성하고 있다.



발전소 야경

## 회원사 소개

매년말 직원들은 부서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현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에 대한 평가를 하고 역량의 강화를 위한 익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개인별 맞춤형 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특히 직원들이 상위직급으로의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역량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 승격가능 확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학습조직의 분위기는 다양한 여학교육 지원을 통한 자기계발과 업무관련 자격증 취득에 대한 격려금 및 수당 지급의 확대실시를 통해 2004년에는 총 99개의 자격증 및 면허증의 신규등록이라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또한 임직원에게 다양한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대 최고산업전략과정' '능력협회 CEO & Consultant과정' '주요대 야간경영대학원 과정' '미Washington 주립대 경영대학원과정'을 엄격한 인재 선발 절차를 거쳐 실시하고 있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은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KEEI)에서 실시하는 '에너지 고위과정'에

참여하여 에너지업계의 전문인력으로서의 자질을 강화하고 있다.

조직원의 역량은 시스템을 통한 유기적 통합과정을 거쳐 조직의 역량으로 표출된다. KIECO는 1993년 팀제를 도입하여 팀장을 중심으로 Teamwork을 바탕으로 개인의 역량을 발휘하도록 조직운영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회사와 개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신뢰구축을 위하여 다양한 의사소통 경로를 마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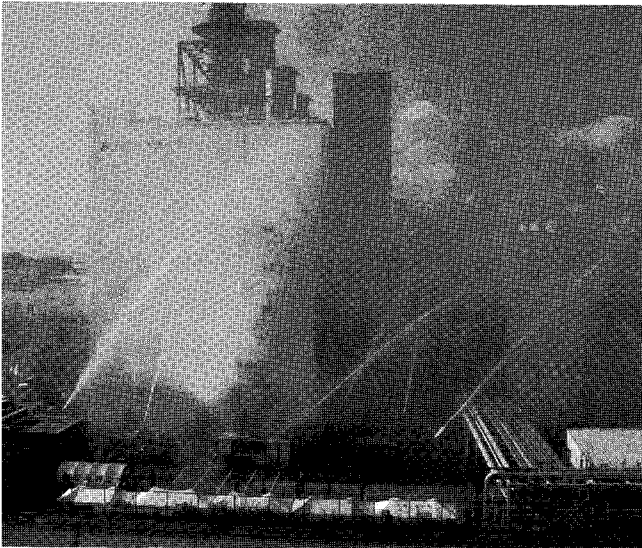
On-line 상으로는 '열림터'라는 공간을 만들어 회사와 개인의 발전을 위하여 한정된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반론을 제기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대표이사는 본사 및 공장의 다양한 직원들과 정기적인 '사장과의 대화' 시간을 통하여 직원들의 고충과 회사를 위한 제언들을 직접 청취하여 경영에 반영하는 한편 최고경영진의 생각을 직원들과 직접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다.

또한 매년 초에는 '경영설명회'를 실시하여 회사의 경영실적과 주요정책방향을 직원들과 공유하고 있다. 한편, 팀장 이상의 간부직원은 매년 2회 1박 2일의 Workshop을 통하여 전년도의 경영실적을 반성하고 당해연도의 경영방침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 팀의 업무계획 및 협력방안을 강구하는 시간을 가져 경영효율화를 위한 배전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 변화와 혁신추구

우리는 창의적 발상으로 지속적인 개선과 혁신을 추구하며 회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



재난대비훈련

경영혁신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기업 활동이며 혁신의 원천은 지식과 정보의 바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있다. 회사는 2004년 지식경영의 공감대 확산 및 기반 확보를 위하여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식경영 추진계획 설명회를 갖는 한편, 1단계 사업으로 지식마당을 개설하고 학습 활동 활성화 및 업무기술서의 표준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과거 우리가 추진해온 ‘사무간소화’ ‘업무절차 개선 및 간소화’ ‘직무표준화 및 목표관리제도의 도입’ 등 다양하고 상황에 적합한 경영혁신 활동을 지속시키는 한편, 축적된 경영 Know-how를 회사발전의 발판으로 삼으려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모든 변화와 성장의 기초는 안전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회사는 1974년 국제안전인증 ‘Award of Honor’ 를 수상하고, 1973년부터 1980년까지 7년간 발전소 무사고 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1994년 발전소 증설을 시작으로 발전신뢰도 99.9%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자랑으로 삼고 있다.

2004년 4월 8일에는 ‘무재해 3배수’를 기록하여 국내최대 민간발전소로서 대규모 공장설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안전교육과 상시 안전점검체계의 가동을 통하여 잠재적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제거하여 온 노력의 결실을 거두기도 했다.

특히 2005년 1월 26일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을 획득하여 한단계 향상된 자율적 안전보건 시스템의 정착을 공고히 함은 물론 선진국형 자율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였다는 대외적 인정을 받게 되었다.

## 고객만족 및 사회적 책임완수

우리는 고객만족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여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KIECCO는 1998년 8월부터 발전소의 연료를 액체연료인 LSWR(저유황악스유)에서 청정연료인 LNG로 전환하여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LNG로 연료를 전환하면서 가스터빈에서 발생된 폐열을 폐열회수 보일러에 보내어 고온고압의 증기를 생산, 스팀터빈을 가동하여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발전비용의 절감뿐만 아니라 발전기술 향상에도 크게 기여한 바 있다.

회사는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곧 고객만족의 정도라고 생각하여 환경지킴이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보전의 노력은 국내 LNG 복합화력 최초로 가스터빈에 물을 주입하는 방법(Water Injection Technology)을 이용하여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는 기술을 적용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촉매층에 주입되는 암모니아의 양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2005 경영 설명회

## 직원사 소개

있게 되어 암모니아의 수입비용도 절감하는 일거양득의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

또한 회사의 환경 투명성을 대내외에 알리고자 2003년 환경/안정/보건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2004년에는 이전의 보고서를 한 단계 발전시킨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 배포하여 환경지킴은 일회성이나 선연적인 활동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기업의 사명임을 스스로 다짐하고 선포하게 되었다.

그와 더불어 2004년에는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 중 환경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관리하는 환경회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친환경 경영의 지표로 삼고 있다.

회사의 이러한 환경보호 활동은 대외적으로도 널리 인정 받아 환경부가 후원하고 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가 주최한 2004년도 제16회 대한민국 환경기술장에서 금장을 수상하고, 2003년과 2004년에는 발전소 인근 공지천 정화활동 및 식목행사 등의 환경개선 활동을 인정받아 환경의 날에 단체장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한편, 홍기준 사장 및 임직원은 기업의 진정한 가치는 지역사회와 함께 할 때에 제 빛을 발한다는 신념하에 지역사회와 더불어 사는 여러 가지 사업과 행사를 펼쳐 나가고 있다. 2003년 4월에는 발

전사업에 따른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발전소 부지인 인천 서구 석남동 10,000여평에 '신석체육공원'을 건설하여 주변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이 공원은 KIECO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배구장, 게이트볼장 및 녹지를 조성한 것으로 시민들의 쉼터로서 역할을 함으로써 회사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써 책임을 다하는 상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KIECO는 2002년 4월부터 서울 본사와 인천 발전소의 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전개해 나가고 있다. 전 임직원은 밝은세상 만들기 기금조성을 위해 매월 급여에서 각출하고 회사는 이 각출액의 150%를 Matching Grant 형태로 공여하고 있으며, 매월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 임직원이 다양한 방식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노인' '아동'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균형있는 봉사활동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는 무의탁노인 지원사업으로 경로식당 지원, 월 정기활동(온천나들이, 방풍막 설치, 소독, 장판갈기, 김장 등), 집수리 및 도시락 배달 활동을 전개하고, '꿈이 있는 푸른학교'와 '어깨동무 신나는 집'의 아동들에게는 동호회 연계활동(컴퓨터, 볼링, 축구, 탁구), 공부방 연합행사(눈썰매, 어린이 날, 수영장) 및 월 정기활동(집수리, 송편만들기, 연말선물 등), 지역주민에게는 신석체육공원을 무료로 개방하는 한편 마을버스 및 노인정 유류대 지원과 불우이웃 돕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다양한 사회공헌의 활동은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아 2002년 인천시 자원봉사 대회에서 인천시장상, 2003년에는 제7회 노인의 날을 맞아 국무총리상등 인천지역의 단체장상등을 수상한 바 있



신석체육공원 준공식

다. 또한 2002년 12월에는 한국경로 복지재단으로부터, 2004년에는 '부스리기 사랑나눔회' '관악사회 복지관' '꿈이 있는 푸른학교'로부터 감사패를 전달 받아 전 임직원이 그간의 활동에 대해 한층 보람을 갖게 되었다.

### 현재와 미래

KIECO는 안정적인 사업구조와 임직원들의 생산성 향상 및 비용절감 노력 등에 힘입어 우수한 영업실적을 거두어 왔으며, 그 결과로 신용평가기관에서도 당사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왔다.

2004년 1월에 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CP)은 최고등급인 A1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6월에는 장기신용등급인 회사채 평가등급이 기존의 A+에서 국내제조업 최고 수준인 AA-로 1등급 상향 조정됨으로써 대외이미지의 획기적 개선은 물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더욱 굳건히 하고 있다.

회사는 발전소의 운영 Know-how와 조직원의 역량을 바탕으로 2014년까지의 중장기 Master Plan을 수립하여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종합에너지회사를 지향하고 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회사는 아시아 시장에서의 사업영역 확대를 모색할 계획이다. 중국, 태국 등 아시아 각국의 경제성장률에 따른 에너지수요의 증가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전력시장에의 진출 기회를 모색하기 위하여 합작선을 모색하고 투자처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의 에너지 시장이 추구하는 대체에너지 개발에도 참여의 기회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진출은 시대적 사명일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청정에너지 발전소를 자임하여 온 회사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성장을 위한 기초는 국내의 발전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진출과



무재해 3배수 달성 인증 수여식

지속적인 경영혁신 활동을 통하여 경쟁력이 마련될 것이다. 나아가서 가스산업 및 대체에너지 사업으로의 사업확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와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며, 그 모든 활동과 성장의 이익을 고객과 사회에 환원하여 기업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것을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

### 회사연혁

- 1968. 4 합작투자계약 인가  
(한국화약, 美 UNOCAL)
- 1968. 9 전기사업경영 허가(상공부)
- 1969. 2 화력발전소 기공(324.8mw)
- 1969. 11 경인에너지개발(주) 설립
- 1970. 3 경인에너지(주)로 상호 변경
- 1972. 2 스팀터빈 상업운전 개시(324.8mw)
- 1983. 12 경인에너지(주) 내국화  
(유니언 오일 주식 인수)
- 1993. 7 전력수급기여 공로 대통령 표창 수상
- 1994. 10 한화에너지(주)로 상호 변경
- 1999. 8 현대정유(주)에 한화에너지(주) 매각,  
(주)한화에서 발전사업 영업양수
- 1999. 12 (주)한화로부터 발전사업 분리 및  
한화에너지(주)로 설립등기
- 2000. 7 El Paso(美)의 자본납입으로  
(주)한화와 1:1 합작
- 2000. 10 한국종합에너지(주)로 상호 변경 및  
한화그룹에서 계열 분리